

전·현직 거점국립대 총장·교육감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균형발전을”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
UC 같은 시스템 조성을”

“(가칭)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전·현직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과 전·현직 교육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이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서울대와 지역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도입’ 등 거점 국립대 강화 정책은 차기 정부 시대 정치권의 합의된 개혁정책 영역”이라며 “이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구체화되고 실효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 경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현직 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들, 차진인 전 부산대 총장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전직 거점대 총장들과 교육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현 상황에 대해 “그동안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강고한 대입 경쟁 체제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유·초·중등 교육이 왜곡돼 왔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교육 주체가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급기야 사교육시장에 ‘초등의대반’, ‘7세고시반’, 심지어 ‘5세고시반’까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현직 거점대 총장들과 교육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가칭)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출신은 자녀의 행복한 성장을 꿈꾸는 일이 아니라 자녀의 입시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 됐다”며 “서울 소재 몇 개 대학으로 향하는 대입병목 현상이 입시지옥의 실체며,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 캘리포니아대학 체제(UC

system)와 같은 동반성장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현직 총장들과 교육감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AI 시대 창의적 사고력 교육, 전인교육의 숨통이 트일 것이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크게 완화돼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대학에서 교육받고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의 주축이 돼 지역소멸을 막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9개 권역별로 하나의 국립대학시스템을 구축하는 ‘1도 1국립대 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의 학생정원 동등분할, 지역균형선발과 사회통합전형 확대, 특성화·분업체제 구축, 교수·학생 교류 대폭 확대 등 거점국립대학이 앞장서 전국 대학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칭)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가적 난제 중의 난제를 풀어가는 전략적 수단이자, 선순환의 첫 고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 정책이 구체화되고 실효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장 등 대상 계약업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본청 회의실에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27명을 대상으로 계약업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기관장의 책임 있는 리더십과 계약업무 관심 제고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과 민원 사례,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 등 기관장이 반드시 인지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교육을 계기로 기관장이 공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계약 업무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원칙에 따라 △기관장 대상 청렴교육 확대 △계약업무 컨설팅 강화 △사전 점검체계 구축 등 예방 중심의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정한 계약은 교육행정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라며 “기관장이 앞장서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때 교육 구성원과 도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달 초등 문해교육 교원 연수

전주학생교육문화관(관장 김형대)은 6월 4~17일까지 초등 문해교육 교원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하면 된다. 연수는 집합 연수와 현장실습 등 총 70시간으로 성인 대상 문해교육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 연수 내용으로는 △문해교육의 이해 △문해교육 교사론 △문해교육 교수학습 방법 등이 있으며, 문해교육 교원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멘토 책임과정’도 함께 운영된다. 멘토 책임과정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해교육 멘토들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경험과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돕는다.

현장실습은 멘토가 소속된 문해교육 기관에서 5일간 진행되며, 연수생들은 실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관찰하고 실습하게 된다. 수료자에게는 초 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 자격이 부여된다.

/장은성 기자

대학생 대상 행정통제·공공감사 현장 이해 수업

전북교육청, 청렴 문화 확산 일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본청 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통제와 공공감사 현장 이해 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업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에게 행정통제와 감사의 실체를 이해시키고, 부패 없는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수업 내용은 공직사회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감사, 지도, 시정하는 행정통제와 공공감사의 역할 등이다.

특히 이흥열 감사관이 1일 감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감사관은 대학생들에게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 취약 분야 내부통제제도와 감사 사례를 소개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본청 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통제와 공공감사 현장 이해 수업’을 실시했다.

며 청렴한 감사 행정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향후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청렴서포터즈 운영 △청렴 캠페인 활동 △부패 차단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흥열 감사관은 “이번 수업은 실제

감사를 통해 미래세대에 청렴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투명한 전북교육의 이미지를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세대의 청렴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렴 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어린이 기후변화 인식 제고·실천 역량 강화

전북환경보건센터, 완주지역

초등생 기후변화 대응 교육

전북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용현)는 지난 19~20일 양일간 완주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 민감계층인 아동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된 체험 중심의 환경보건사업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19일 삼례동초등학교, 20일 청원초등학교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3~6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기후변화의 원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활 속 실천방안 등 이론 교육과 함께 학년별 체험활동을 병행했다.

이에 3~4학년 학생들은 ‘환경보건 딱지 만들기’와 ‘AR(증강현실) 게임’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5·6학년 학생들은



전북환경보건센터는 지난 19~20일 양일간 완주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환경보건 코딩봇 보드게임’을 활용해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협업 능력 등을 향상시켰다.

김용현 센터장은 “기후위기가 일상인 지금, 아동이 조기에 환경보건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체험이 결합된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의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북학부모협의회 회의 임원진 선거에서 김지숙 군산학부모협의회회장이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진은 새로 선출된 임원진들과 서거석 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협력 강화”

김지숙 제3대 전북학부모협의회회장 선출

전북학부모협의회 제3대 회장에 김지숙 군산학부모협의회회장이 선출됐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지난 19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학부모협의회 회의 임원진 선거에서 김지숙 군산학부모협의회회장이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국창호 전주시 학부모협의회회장과 정혜운 익산시 학부모협의회회장이, 감사는 정현경 부안군학부모협의회회장, 총무는 김찬휘 남원시 학부모협의회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김지숙 회장은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격차

가 없는 협의회를 통해 전북의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부모회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학부모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이며,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 중심의 전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당신의 한 표, 아이들의 미래”

전북교육청, 대선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전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신의 한 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선거를 통해 학생들에게 투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철학을 지역사회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를 알리는 현수막 설치 및 전광판 메시지 게재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카드뉴스 및 콘텐츠 배포 △생애 첫 투표를 행사하는 학생 유권자를 위한 ‘18세, 투표로 세상을 움직인다’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여러분의 한 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뜻깊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 참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전북,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당당히 실천하는 전북의 모든 유권자들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다문화센터, 법무부장관 표창

세계인의 날 기념식서

사회통합 기여 공로 인정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20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14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해 유공 포상자 및 가족, 이민자 네트워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2008년 다문화 사회통합 주요 거점대학(ABT)에 선정된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추진, 다문화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2010년부터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1거점 운영기관으로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왔다.

이승미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우석



대학교 다문화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구성원들이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는 다문화 구성원들의 사회적 통합력 제고와 교류 확대를 위해 2008년 11월 설립됐다.

/장은성 기자